

[기획연재 5] 이스라엘 구속과 회복

구속사적으로 본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선교

김해리 / 1994

반유대주의 역사적 이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고찰에 앞서서 사도시대 이후 과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훼파된 후 유대인들은 전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나라가 없는 가운데 유리 방황하며 박해속에서 살아왔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 마다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운동에 부딪혔고 그 결과 재산과 자녀와 생명을 잃는 박해를 무수히 받아왔었다. 이 반유대주의의 근원을 간단히 살펴본다.

1. 반유대주의 태동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신약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성경에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자기 민족과 나머지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성경의 기록 밖에서도 크리스찬 유대인(Messianic Jews)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를 친히 알았던 자들의 제자들도 이러한 생활양식을 따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는 크게 세가지 매우 다른 유형의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에비온파, 나사렛파, 동화파였다.

가. 에비온파(Eblonites)

이 파는 반 바울파(Anti-Paul)로서 신약성경도 대부분 부정하고 단지 마태복음만 인정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였다. 「에비온」이란 말의 뜻은 「가난한 자」란 뜻인데 예수에 대한 약한, 부족한 견해를 가졌다는 뜻으로 또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다.

나. 나사렛파(Nazarnene)

이 파는 사도들의 노선과 가장 가까웠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그룹이었다. 에비온파와는 달리 그들은 신약의 중심 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모든 면에서 온전히 성경적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일부로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절기와 풍습을 지켰다. 오늘날의 크리스찬 유대인들(Messianic Jews)은 자신들을 이 나사렛파와 같은 성격의 그룹으로 칭한다.

다. 동화파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전통적 유전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비유대인 문화가 우세한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변형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 유대인으로서의 동질성 정체성을 잃었다.

* 출처 - 온누리신문